

문서번호 : 991213-5

수신 : 948

발신 : 제12대 총여학생회(준)

연세 성폭력 연대회의(가칭)를 제안합니다.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대학 내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진부한 단어가 되어 버린 듯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성폭력 담론이 그만큼 널리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제 너무 진부한 듯 느껴지는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연세 내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여성들의 일상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무수한 성폭력들을 은폐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의 조항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교육에서의 성차별 전반에 대해 금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각 대학으로 보내어 대학 내 성차별의 예방·대책에 관한 정책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부가 주요하게 강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참조)
-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에 관한 교육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에 관한 상담자의 지정 또는 고충처리 제도의 마련 등
- 고충상담원 지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처리를 위하여 상담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추천을 받는 등의 절차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일부 대학에서는 현재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하고 성폭력 학칙에 대해 그 동안 활동해 온 대학 내 여성모임들에게 문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세, 특히 여학생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더군다나 여학생처가 연세춘추에 성폭력 학칙 제정의 의지를 결연히(?) 밝힌 상황에서 이제까지 꾸준히 반성폭력 운동을 해 왔던, 그리고 남성중심적·성폭력적 문화에 문제제기하려는 학내 여성모임들이 적극적으로 성폭력 학칙제정을 포함한 반성폭력 담론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세 성폭력 연대회의(가칭)를 제안합니다.

학교 측에서 서두르고 있는 성폭력 학칙제정의 중심은 학내에서 이제까지 성폭력 문제를 고민해왔던 여성자치단체들과 총여학생회가 되어야 합니다.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각 학교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동의하

고 있는데...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전학생운동으로 대학 내 성에 대한 캠페인을 열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11대)총여학생회와 함께 성폭력에 대한 윤리 강령을 만들고자 한다 이 캠페인에는 성폭력 학칙제정도 포함되어 있다... (11대)총여와는 유기적인 관계인데, 건전학생운동을 같이 밀고 나간다. (11대)총여가 많은 학생들을 특강에 모아 주는 것, 캠페인 등도 학생들 차원에서 다른 학교의 것을 모아오도록 함으로써 동참시키고 있다..”

- 'y대 여학생처장 인터뷰', 대학 내 성폭력 관련 정책 공청회 자료집.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실제로 학교측에서는 성폭력 관련 정책에 관한 고민이 부재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학교측의 성폭력 관련 기관은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되어 있는 학생 상벌 위원회, 상담 위원회, 성상담교실 등이 있지만 여학생처장도 시인하듯 이러한 기관은 활성화되어 운영되지 못하며 실제로 학생들이 이 기관들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전반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성폭력 상담소를 포함한 학생 상벌위원회, 상담 위원회 등에 접수되었던 여러 건의 사건들이 공론화 되지 않고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폭력 관련 학교 기관에서는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리는 것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생각하며 사건의 발생률조차도 밝히지 않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학칙제정을 학교측의 손에 맡겨 둘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 학생들의 힘으로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까지 계속되어 왔던 남성중심적 성폭력 담론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구성, 그리고 성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운동의 다양한 흐름들을 총여학생회, 여성자치단체들이 각자가 서 있는 기반에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제12대 총여학생회(준)은 연세 성폭력 연대회의(가)라는 총여학생회와 자치단체의 연대체를 통해서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는 성폭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자의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성폭력 학칙제정을 포함한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들을 실질적으로 형성해나가기 바랍니다. 연세 성폭력 연대회의(가)는 총여학생회, 여성자치단체, 반성폭력 운동에 관심있는 개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연세 성폭력 연대회의(가)의 구성과 앞으로 전개해나갈 운동의 흐름들에 대한 논의는 테이블이 꾸려진 후에 자세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여성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